

# 온누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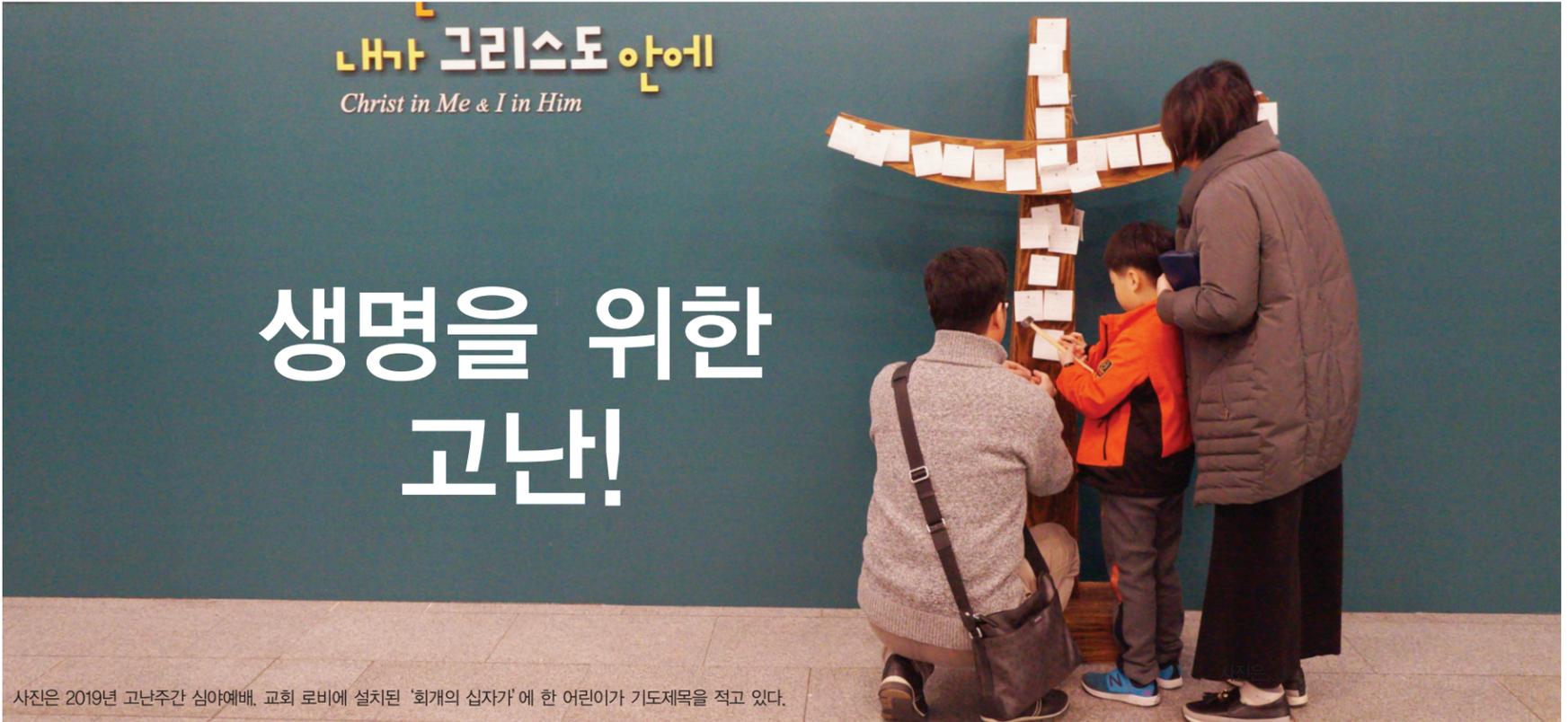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3월 7일(주일) 제1334호



사진은 2019년 고난주간 심야예배,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한 어린이가 기도제목용을 적고 있다.

## 생명을 위한 고난!

### 3월 22~27일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3월 29일~4월 3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 동안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 그것이다.

CGNTV가 주최하는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는 오는 3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이어진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에는 한국 교

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출동한다. 3월 22일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를 시작으로 23일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24일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25일 유병국 선교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26일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지구

촌교회), 27일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각각 설교와 사회를 맡는다.

온누리교회가 주관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은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막 오른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서는 행동하는 프로 라이프(낙태반대운동)와 로잔대회 사역목사들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3월 29일(월) 박상은 박사(샘병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30일 김현철 목사(사단법인 프로 라이프 설립, 목산교회 역임), 31일 이종락 목

사(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대표), 4월 1일 이봉화 목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차관 역임), 2일과 3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은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CGNTV에서 중계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

### 3월 16~18일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

한국과 일본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이하 한일 합동기도회)가 3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사흘 동안 오후 7시 온라인 실시간(유튜브, 줌)으로 진행된다.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주제로 막으려는 이번 한일 합동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자 한일 양국 크리스천과 교회가 연합해서 마련한 은혜의 장(場)이다. 한국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한국어), 일본 성도들은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일어), 일본 교회, 러브소

나타 협력교회, 비전교회 목회자는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번 한일 합동기도회는 서울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16일 서울 온누리교회, 17~18일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3월 16일 이재훈 목사 '회개', 17일 시미즈 쇼조 목사(다카이시성서교회) '치유와 회복', 18일 나가타 마키오 목사(구마모토나사렛교회)가 '연합과 부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한일 합동기도회 특별 게스트도 풍성하다.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영미 권사(소프라노), 배재철(테너), 나가사와 다카후미 목사(찬양사역자)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02-3215-3717

## 신앙 콘텐츠 보고, 아이스쿨 학점도 받고

### 기독OTT '풍당' 과 아이스쿨 학점 연계 서비스

기독OTT 풍당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아이스쿨 학점도 받을 수 있다. 기독OTT 풍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OBC 갈라디아서', 'OBC 빌립보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예수가 전한 팔복' 등의 강의를 시청하면 아이스쿨 학점을 주는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양육 강좌 수강신청을 하고, 기독OTT 풍당 콘텐츠를 시청하면 된다.

CGNTV가 제작한 기독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풍당은 출시와 동시에 성도들

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서비스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좋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호평 일색이다.

기독OTT 풍당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 출석교회 등 개인정보와 신앙성장영역을 체크하면 맞춤형 기독콘텐츠를 제공해준다. 또한 주제별 강의를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 풍당 클래스에서는 풍당 사순절 클래스, 풍당 키즈반, 풍당 사명자반, 풍당 기독교 교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92-0691

### 서빙고 토요일 3, 4부 예배당 예배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3월 6일(토)부터 토요일예배 3부(오후 1시)와 4부(오후 3시)를 예배당 예배로 드린다.

토요일예배 3부, 4부 예배당 예배를 드리

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에서 예배 예약을 한 다음 교회에 오면 된다.

문의: 02-3215-3238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 온누리의 새로운 일상 '90일의 기적'

## 동료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장애인도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와 감동, 간증이 날마다 새롭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이제 90일의 기적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순천 성도(브릿지33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예배가 일상이 되었다.

"친구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빵을 구우려면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새벽기도회를 시청하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벽기도회 찬양을 들으면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출근해서는 친구와 함께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는다. 분주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직장이 또 하나의 신앙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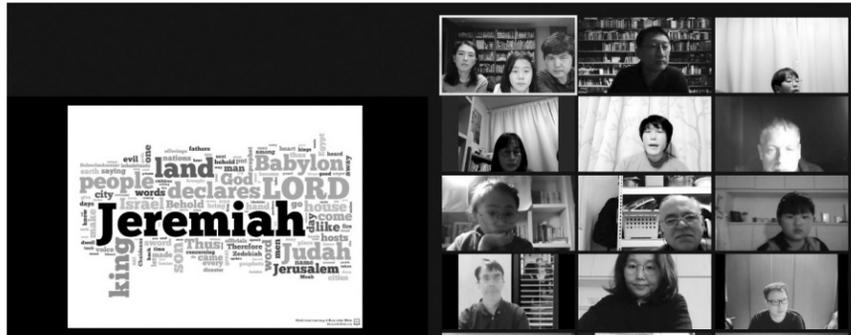
"베이커리에 도착하면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빵을 만듭니다. 친구와 같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성경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힘들음을 다 알고 계시고,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날마다 주일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성도(영어예배)네는 온 가족(아내, 딸 하윤이)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다.

"제가 20대 시절 어머니와 함께 성경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의 추억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 하윤이(초5)에게도 저와 같은 추억과 신앙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온 가족이 함께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윤이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마냥 재미있는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하윤이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90일의 기



제빵을 하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듣고 있는 한순천 자매, 영어예배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형원 성도 가족, 이정림 집사와 김보라 자매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 있다(위부터 아래로).

적이 끝나면 인형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기는 했는데 선물보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말씀을 읽는 재미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하윤이가 성경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기특하고, 부모로서 본이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도 한번 해볼래?"

### 온사랑합창단 김보라 자매와 이정림 집사

이정림 집사(경기A공동체)는 딸 김보라 자매(예수사랑부, 온사랑합창단)와 함께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딸과 함께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첫날 딸에게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했습니다. 권유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발달장애가 있어 성경을 읽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보라 자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진득하게 집중해서 성경일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정림 집사가 크게 반성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라가 이렇게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라를 약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제한했더라고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아니었다면 보라의 대단스러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정림 집사와 김보라 자매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시작하고부터 일상이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온사랑합창단 연습도 못했습니다. 보라는 복지관에도 안 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부터는 날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저와 함께 성경일독을 하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로운 대화를 합니다. 성화 퍼즐도 맞추고 있고요. 무료했던 하루가 알차고 질서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더라도 꾸준히 성경일독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정림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장애인 부서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무료한 시간을 우리 모녀처럼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보내는 장애인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도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적응해야 하는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주시고"

/ 정현주, 김명선 기자

###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2월 24일~3월 2일)

- 주님이 기다리신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 이미경 성도(경기A공동체)
-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바라셨고, 그럴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 선예원 자매(대전 온누리교회)
-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서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 김가영 성도(무공동체)

-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못 볼 터지듯, 여호와와 바람에 몰아치는 강물처럼 그분이 오신다. / 신미자 권사(이수공동체)
-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저와 아이들의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기로 결단합니다. / 유선주 성도(서초D공동체)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매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날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내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박영란 집사(강남D공동체)

- 제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 김경호 집사(관악금천공동체)
-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 김민희 성도(서초D공동체)
- 예레미야가 수없이 강경해도 시드기야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성이 함락되어 도망가던 중, 느브갓네살 왕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게 된다. 시드기야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스스로 고난에 처하는 것은 없는지, 깊은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 김월옥 성도(경기A공동체)

-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일쑤인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박경엽 성도(무공동체)
-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교만으로 인간의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 임미리 성도(이수공동체)
- 포로된 유다에게 편지를 쓰는 예레미야,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종이 된 비참한 삶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다. / 김경옥 간사(재정국)

##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 “헌혈보다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

## 333번째 헌혈 맹성근 성도, 127번째 헌혈 김대형 성도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덤으로 얻은 인생에 감사하며 333번째 헌혈한 맹성근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왼쪽)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27번째 헌혈한 김대형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오른쪽).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3월 4일까지 703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며 값진 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사는 지역에 헌혈의 집이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헌혈을 한 성도, 인생의 마지막 헌혈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참가한 65세 이상 된 성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정헌혈을 한 성도, 생애 첫 헌혈을 한 성도 등 칭찬이 절로 나오는 사연이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칭찬을 더 해주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 한 번 하기도 겁이 나서 주저하는 헌혈을 무려 100번 넘게 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맹성근 성도(성동광진공동체)와 김대형 성도(가정사역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 덤으로 얻은 인생에 감사하고, 빛진 마음 값을 수 있는 '헌혈'

지난 2월 20일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소감을 나누는 온누리교회 SNS 계정에 기분 좋은 자랑 글(?)이 하나 올라왔다. '남편의 333번째 헌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린다'는 어느 아내의 소감이었다. 김현정 성도(성동광진공동체)가 남편 맹성근 성도의 333번째 헌혈을 축하하고 칭찬하고자 SNS에 소감을 남겼

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헌혈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뒤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헌혈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서 말리기도 했는데 어디 제 말을 들어야 말이지(웃음). 우리 남편 헌혈에는 절대 양보가 없거든요. 마침 교회에서 생명나눔의 기적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것을 보면서 남편을 걱정했던 제 마음이 어느새 감사와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남편에게 지금까지 헌혈을 몇 번이나 했냐고 물었더니 332번 했대더라고요. 오랜 시간 헌혈을 꾸준히 해 온 남편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333번째 헌혈을 마치고 SNS에 소감을 제가 대신 남겼어요."

맹성근 성도에게 헌혈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자 덤으로 얻은 인생에 감사하고, 빛진 마음을 값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맹성근 성도는 몇 년 전 큰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 2번 뼈가 부러졌다. 뼈가 조금이라도 더 밀렸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회복됐다.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헌혈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칫했으면 제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의

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꾸준히 해오던 헌혈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제가 살아 있음을 깨닫는 일이자 거저 얻은 인생에 감사하고, 빛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입니다."

맹성근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헌혈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혈소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헌혈은 주로 백혈병 환자들에게 수혈되는데 그들은 혈소판 헌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제 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헌혈은 제가 나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제게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큼니다. 또한 헌혈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값진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 헌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작은 실천

여기 대단한 헌혈 이력을 가진 성도가 또 있다. 28년 동안 헌혈을 127번이나 한 김대형 성도다. 김대형 성도는 일 년에 6번씩 헌혈을 하고 있다. 헌혈할 날짜를 잊을까봐 날짜까지 챙겨가며 헌혈하고 있다. 시작은 초코과자였다.

"제가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37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 이제 막 입대했던 제게 논산훈련소에서 헌혈하면 초코과자와 오렌지주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한 오렌지주스와 초코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헌혈을 시작했습니다(웃음). 간식 좀 먹어보겠다는 일념으로 헌혈차에 올랐는데 저혈압이라 헌혈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니까 초코과자 하나 정도는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헌혈이 엄청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행히 자대배치를 받고서

는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먹은 초코과자가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웃음 나는 소소한 계기였지만, 김대형 성도는 28년 동안 진심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할수록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혈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헌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만의 작은 이웃 사랑 실천 방법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얻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간수치가 안 좋아져서 헌혈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속상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헌혈을 못하다가 한의원에서 보약을 한 재 먹고 간이 좋아져서 다시 헌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150번 헌혈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난번 건강검진결과 성인병 문턱에 와있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다이어트도 했습니다. 제 건강도 챙기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헌혈보다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생명나눔 프로젝트를 해서 오게 되었다고 하니 헌혈 해주시는 선생님이 울먹울먹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저까지 따뜻해지는 순간이었고 다음 헌혈까지 예약하고 왔습니다!"

/ 김설희 성도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도 망설이던 중 소중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수혈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친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 먼저 헌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같이 작은 사람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 박미정 성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11:31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어떤 권면을 주었는지 고린도후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갈등 과정에서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갈등과 고난이 있다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체험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지를 세상 속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대하여 빛진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1~2절).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임했는데도 은혜가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큼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진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대하여 빛진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

니다. 사랑에 빛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빛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빛진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빛진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에 빛진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명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 세상의 유혹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빛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변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은혜의 사역자 된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와 그에 대한 분노와 자존심 등을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부르심과 직분을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미 3장에서부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5장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지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4~5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절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분이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꾼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 고난 속에서 영광을 체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갈수록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빛진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최고의 고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에게는 고난이 피해 가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상황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좋은 상황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고난의 삶이라고 각오해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고난이 없는 삶을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셔서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때까지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른 태도로 받게 됩니다. 고난을 완벽하게 이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자가 됩니다.

###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만 받고 은혜에 따라오는 고난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따라오는 고난은 은혜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고난이요, 다 이루신 고난입니다. 그러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가 증거되는데 필요한 고난입니다. 은혜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빛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일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에 은혜가 전해지는 데 필요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겼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경험한 승리를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지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4~5절).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고난들입니다. 이 고난들을 세 개씩 한 카테고리도 묶을 수 없습니다. 환란, 궁핍, 곤란은 사역자로서의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매 맞음, 감옥에 갇힘, 난동은 바울에게 특별히 주어질 사람들에게 의해서 의도적으로 가해진 고난입니다. 수고, 지지 못함, 배고픔은 바울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떤 영적 태도로 대했는지도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6~7절).

영적 태도에는 성령의 능력, 은사, 열매가 포함됩니다. 순결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성령님의 감화’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외적인 영역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때로 어떤 성품과 인내와 은사를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만, 외적으로는 말씀과 의의 무기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사회학, 국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 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를 사용했지만 모든 결정은 직접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나오면 출발했고, 서라하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수권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강력한 주변국들에 핍박을 당하자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뀔 때 그들의 재능, 시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위임해야 하는 위험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의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안에서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일로 꼽고 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있어야 할 질서는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가 그 바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가 다스리던 시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켰느냐가 그 지표가

되고 있다.

이슬람은 알라가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코란에 계시되어 있거나 무함마드의 행전인 하디스 순서에 나타난 알라의 뜻을 따른 그들의 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샤리아(법)에 의해 통치된다. 무슬림들은 샤리아와 그것을 집행하는 종교와 정부의 지도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슬람은 그들의 포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의 무리로 간주하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통해 이슬람을 전파했고,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인 칼리프는 알라에게 복종하듯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이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이다.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기독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가정과 교회 같은 사회기관들을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뜯어고치기 위해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상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에 권력도 더 많이 양도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설득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질적으로 아주 달라서 국가가 이들 기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 인본주의적 이상주의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

해서는 하나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권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것이 국제연합(UN)이다. 그러나 실상은 국제연합과 산하 기관들이 각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무신론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경계가 사라진 전 지구적 공산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일어나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권한을 양도한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경계도 허물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시장에서 결정해 주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생성물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관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그들이 이상향이라고 주장하는 행복한 나라의 기준도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른 것처럼 다수결로 결정된 행복을 강제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뉴에이지는 국가라는 기관의 행정과 법률은 작은 자아(아트만)가 큰 자아(브라만)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에 간섭하지 않는 국가를 선호한다. 포스트모던 역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도덕률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강

력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기존의 법과 질서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당(PC)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모일 경우 그 집단은 비도덕적인 일들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집단이 그런 일들을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부어는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더 부도덕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모임에 의해 새로운 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이미 존재하던 악이 집단이라는 악명의 방어막 뒤에서 고삐가 풀린 채 날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축적된 이기적 충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개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또 개개인의 자정 능력이 발휘된다고 할지라도 사회 집단의 이기주의에 부딪쳐 변질된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국가권력으로 개선해 보려는 무신론적 이상주의의 무모한 시도보다는 개개인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변화가 파급되게 하는 기독교의 방법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구원을 얻으리라."

**묵상: 사회개혁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힘을 양도할 용의가 있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분노의 근원적 원인 찾고, 건강하게 표출하기

"배우자에게 종종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 깊이 눌러 놓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고,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떠오르는 감정 중 하나다. 그래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고,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노는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 관계의 역동 가운데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연히 던진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섭섭함, 미움, 서글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건드리고 이것이 분노로 표출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한다. 아침 시간은 특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은 말투가 되기 쉽다.

"여보 베택이 색깔이 안 어울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선택을 부정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숨겨진 감정을 건드린다. 깊은 마음에서 분노의 형태가 치솟아 오른다. 물론 아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이 어찌하든지 남편은 이미 이성적으로 느끼기보다 감정적으로 몹시 불쾌한 상태가 되어 투덜거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 버린다.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누구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관계 안에서 증폭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노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2차 감정'이라고 불린다. 분노는 표현된 양상이고,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이 있다. 기대가 좌절되거나 불안할 때,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화가 난다. 분노는 '쓴 뿌리', '미해결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남편은 자신의 마음 깊이 있는 신뢰 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과 감정이 분노의

이면에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노는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화를 내도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자신이 화가 나는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크다.

스필버거는 분노의 표현 양식을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로 분류하고 있다. 신앙적 기준이 높을수록 분노는 억제된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고 심지어 죄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분노를 대면해서 해결할 감정으로 인식하지 못할수록 억제, 침묵, 회피하게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싸운 뒤 광장히 힘든 회복 과정을 경험했다면 더욱 회피가 강화될 수 있다. 나도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다투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더욱 분노를 회피하게 됐었고, 해결되지 않은 숨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분노가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는 건

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 14:29).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노는 조절되어야 한다. 너무 힘들어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기억하기, 깊은 숨쉬기, 타임아웃, 잠시 걷기, 차 마시기, 생각 전환하기, 자동적 사고 파악하기 등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도 잘 표현하는 것이 부부의 친밀을 돈독히 하는 방법이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한반도의 풍경이 이랬을 것이다. 50년 이상 전쟁터였던 남수단은 폐허라는 단어 외에는 그 모양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새 생명이 움트도록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정은희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GMS, BEE Korea)다. 정은희 선교사는 남수단의 회복을 위하여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지난 2000년부터 아프리카 수단에서 20년 넘게 햇빛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정은희 선교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새 생명 움트도록

### 남수단의 상처 받은 영혼들과 함께 '정은희 선교사'

아프리카 수단은 1956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내전을 겪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슬픈 나라다. 정은희 선교사가 수단으로 파송 받은 2000년에도 아랍인계 북수단과 아프리카계 남수단의 내전이 한창이었다.

“무슬림 전도사역과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교회와 교육사역을 하다가 2007년 BEE KOREA 협력선교사가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당신 남수단은 전쟁이 한창이라 방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단이 내전을 겪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유럽의 식민지배 후유증과 남수단의 천연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내전이 남수단에서 벌어졌다. 선량한 주민들이 전쟁 피해자로 전락했고, 남수단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생각해보십시오.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자라고, 죽어가고, 그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로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을 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협박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분들과 수단에서의 사역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서부지역의 기독교 부족인 누바족 사역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단의 기독교 박해가 점차 심해지면서 수단에서의 사역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 “또 수단으로 가라고요?”

2011년 수단이 아랍계 북수단과 아프리카계 남수단으로 분단되면서 또 한 번 태풍이 불었다. 북수단에서 기독교 탄압이 격화되었다. 2012년부터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정은희 선교사도 2013년 3월 북수단에서 추방당했다.

“오랜 시간 사역하던 북수단에서 추방을 당하고 상처가 정말 깊고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다음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중동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수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수단 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 좋지 않은 여자 선교사 혼자 전쟁터인 남수단으로 선교하러 가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북수단에서 추방당한 상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남수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게다가 남수단에서는 2013년 12월 내전이 또 다시 발발했다.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은희 선교사가 하나님께 무리한 조건을 걸었다.

“제가 남수단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훈련을 제안할 건데 그 비용을 남수단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하면서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수단보다 환경이 나은 북수단에서도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수단 교회 지도자들이 훈련 비용이 부족하면 자신들의 밥값을 아끼기 위해 금식을 하겠다고 해서 제발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은희 선교사의 말대로 남수단은 북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정은희 선교사가 북수단에서 사역할 때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남수단은 독립 이후 물가가 80배 가까이 상승했고, 물과 전기 시설도 없었다. 교류하면서 신앙을 나눌 선교사도 없었다. 그래도 정은희 선교사가 남수단에서 끝까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막 독립한 남수단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떤 끔찍한 역사가 또다시 이어질지 볼 뻔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전쟁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수단에 6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도 특하면 전쟁을 벌일 정도니까요.”

#### 누군가 나서서 돕지 않는다면...

2018년 가을,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이 평화 협정을 맺었다. 그것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아픔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남수단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남수단 국민 30%는 난민이 되어서 우간다, 케냐, 북수단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남



남수단 캐세리2 마을 회복과 변화의 신호탄인 우물 완공식 현장.(가운데 정은희 선교사)

수단 내전 사망자가 공식 집계로 40만 명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은희 선교사는 나아지지 않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현지 교회와 함께 남수단을 회복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은희 선교사와 동역하는 교회 중 하나가 ‘캐세리2 장로교회’다.

캐세리2 장로교회는 폐허가 된 마을을 회복시키지는 일념으로 모인 주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 세운 교회다. 2017년부터 정은희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캐세리2 마을 주민들은 남수단의 수도 주바를 개발하면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들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마을입니다. 제가 BEE KOREA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주민들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도 보건소, 우물, 학교가 없는데 난민 생활하고 있는 남수단 국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남수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돕지 않으면 남수단은 계속 폐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한 마음의 회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정은희 선교사의 행복한 비명

정은희 선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NGO 더멋진세상을 찾아가 남수단 사역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우간다 북부에서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고 있

는 NGO 더멋진세상에서도 정은희 선교사의 제안에 공감하고 함께 남수단 캐세리2 마을을 돕는 사역을 시작으로 남수단을 온전히 회복시키자고 약속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남수단 캐세리2 마을에서 코로나19 긴급 구호가 진행되었고, 우물도 생겼다. 보건소도 건축하고 있다. 캐세리2 마을이 살기 좋아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50가구였던 마을 주민들이 두 배가량 늘었다. NGO 더멋진세상의 마을개발 사역의 중심이 되어준 캐세리2 장로교회도 덩달아 부흥하고 있다.

“캐세리2 장로교회는 나무 그늘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일에는 교회가 꽉 차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정은희 선교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목회자 교육과 캐세리2 마을 개발사역을 동시에 하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한다. 요즘 정은희 선교사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캐세리2 장로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모습만 봐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이 납니다. 캐세리2 마을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캐세리’는 ‘별’이라는 뜻인데 캐세리2 마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남수단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주시요.”

후원문의: 02-2271-2246

# 그 섬에 가면 전도자가 있다

## 명이복 목사와 여수 낭도규포교회

전라남도 여수 시내에서 77번 국도를 타고 조화대교, 둔병대교, 낭도대교를 건너면 조용하고 한적한 섬 '낭도'가 나온다. 그 섬에 가면 아주 특별한 전도자가 있다. 낭도규포교회(전라남도 여주시 화정면 규포안길 1-7)를 섬기는 명이복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월 20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영근 장로, 박진호 팀장, 손현석 총무)과 함께 낭도규포교회를 방문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후원으로 시작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명이복 목사의 숙원이던 친교실이 생겼고, 낡고 부식돼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종탑도 새로 세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전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따뜻하고, 밝고, 깨끗하게 지어진 친교실을 바라보며 손현석 집사(관악금천공동체)가 감탄했다. 손 집사는 낭도규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열악한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친교실 자리는 외관이 최악이었어요. 천막과 흙바닥이 전부였거든요. 지저분하고, 벌레도 많더라고요. 종탑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요. 사모님이 저희보고 종탑이 무너져서 사택을 덮칠까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고 토로했을 정도였습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던 낭도규포교회에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후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소식 말이다. 두 달 동안 이어진 리모델링 공사로 낭도규포교회에 새 종탑이 세워지고, 친교실이 생겼다.

낭도규포교회 리모델링 공사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 송경옥 권사(중종로공동체)다. 본인의 섬김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낭도규포교회 명이복 목사가 농어촌선교팀과 송경옥 권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했다.

“저는 늘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 송경옥 권사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삶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어머니의 그 말씀 한 마디...

명이복 목사가 낭도규포교회에 온 것은 200



낭도규포교회 공사 후 모습.

0년이였다. 당시 명 목사는 45세로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이 재학 중이었다.

“아는 전도사님이 낭도규포교회에 한 번 와달라고 사정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왔습니다. 당시 낭도규포교회 성도가 80~90대 할머니들 스무 명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신학교도 다녀야 하고, 교회도 너무 열악해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이복 목사의 마음을 돌린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말 한 마디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사역지로 낭도규포교회가 어떻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별로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회한다는 사람이 어찌 좋은 데서만 일하려고 하느냐?’ 고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낭도규포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이복 목사에게 어머니는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의 표본이자 지표가 된 인물이다. 25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온갖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정말 힘들고 팍팍한 삶이었지만 한 번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명이복 목사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듯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원수조차 용서하셨다. 그런 어머니의 신앙은 명이복 목사에게 절대적인 지침과 같았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낭도규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다. 신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았다. 육지에서 누리던 기본적인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설상가상 낭도규포교회에 부임한 지 43일 만에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이 엄청났다. 오죽했으면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다. 명 목사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유언하신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설교할지 모르니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하고,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장례 치를 준비를 해야 하고, 언제 어디로 이사갈 지 모르니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 인생의 통로이자 신앙의 통로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았습니다.”

명이복 목사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1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낭도규포교회를 섬기고 있다. 마을의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있다. 명이복 목사는 마을 이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명이복 목사는 낭도 규포마을과 낭도규포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다. 교회가 없는 인근 섬(운두도, 진지도, 지지도)에도 틈만 나면 간다.

“배로 가까운 곳은 25분, 먼 곳은 4~5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섬마다 주민들이 1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마땅한 가게가 없기 때문에 두부, 콩나물, 계란을 사서 갑니다.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는 완강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4년 남은 명이복 목사의 바람은 끝까지 교회와 주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저의 꿈이자 바람은 낭도규포교회와 세 개 섬 주민들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저와 낭도규포교회, 운두도, 진지도, 지지도 주민들을 잊지 말고 기도 해주십시오.”

후원문의: 02-3215-3434

###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서 규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명이복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온누리교회에 큰 빛을 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 주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낭도에 오게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섬과 육지를 오가며 신학교에 다니

던 때가 잊그제 같은데 올해로 2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후회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날개 없는 천사들의 선함의 행실로 인하여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온누리교회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에도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

습니다. 친교실이 만들어져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46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교실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 기쁨을 말로 다 못 할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낭도규포교회 성도님들께 내 것을 타인에게 나누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 어려운 행함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

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큰 힘을 실어준 송경옥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평강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명이복 목사  
(낭도규포교회)

###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이주민' 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평택M센터 OGA (Onnuri Global Academy)

비전이 있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십여년 동안 아내 김향심 선교사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현지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지 교회들을 섬기다가 2018년 8월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국내로 들어와 다문화대안학교를 세우자는 비전에 도전을 받았다.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각 지역 온누리센터에서 OGA를 운영해보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우리는 평택M센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등에서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을 보내주셨다.

어느 날은 비슷한 또래의 캄보디아 이주민 청년 4명이 찾아왔다.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김향심 선교사가 주중에 두 번씩 출장을 나갔고 주말에는 친구들이 평택M센터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말씀도 들었다.

이렇게 전일반과 주말반으로 잘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일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을 병행하여 한국어 토픽 수업을 하고 있고 센터로 나오지 못하는 이주민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주민 청년들과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가 열방청년에베로 모이면



김훈 선교사와 평택 OGA 이주배경 청소년들.

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특히 보안지역에서 10여명의 현지인 청년들과 예배공동체를 이루려면 죽히 수련은 걸렸을 것이다.

평택 OGA에 나오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애뜻하고 마음이 무겁기까지 하다. 러시아에서 온 진주는 부모님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고 휴원할 때는 동생들을 데리고 안고 수업을 받으러 온다. 진주는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꼭 누르고 있다. 인터넷에 러시아 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 분석해보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란에서 온 파티마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부모님을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그들이

난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는 악덕업주와 늘 싸우다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울먹이며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이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필자가 보증을 서서 나눠 갖겠다고 약속하고 교복을 겨우 샀다.

인도에서 온 시온이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게 꿈이자 비전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개그 영상을 꾸준히 올려봤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아직 인도와 한국 문화를 관통하는 개그 코드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비전이 있으면 힘든 현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공동체이다.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열방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주시길 바란다.

문의: 010-7437-5287

/ 김훈, 김향심 선교사(평택M센터)

코로나19, '성경 읽기' 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BC 비전통독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성경 읽기'

기다리던 봄이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잔뜩 움츠렸던 지난 한 해 봄을 갈망하면서 삶을 지탱해준 힘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난해 9월부터 씬 없이 달려온 OBC 비전통독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대학생 시절 성경 읽기 이후 거의 30년 만에 성경통독 과정에 참여했다. OBC 비전통독은 나에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선물해줬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도 갖게 해주었다. 대학생 시절 성경 읽기를 할 때는 한 줄 한 줄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분석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OBC 비전통독 과정은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커다란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성경 읽기 초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려고 노력했다. 저녁마다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체득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유혹과 결핍들이 많았다.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성경 읽기가 중단된 적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다. 마음을 다잡고



장학만 성도(서빙고공동체)가 OBC 비전통독 강의를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다.

주말에 책상에 앉아 성경에 밑줄 그어가며 몰아 읽기도 했다. 하루하루 일정에 맞춰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레고 하루하루 성경 읽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매일 예배드리듯 하나님과 교감했다. 그 과정이 그동안 움크려 있

던 나의 삶에 단비를 내려줬다.

로마서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한 줄 한 줄 성경필사도 했다.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영어성경을 읽기도 했다. 여러 목사님들의 로마서 설교 강의를 들었다. 로마서 안에 녹아있는 사랑의 의미와 간곡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처음 접하고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수많은 주석을 읽었다. 당시에는 믿음(Faith)이 아닌 이성(Reason)의 눈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OBC 비전통독 과정에 참가하면서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깊이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매우 낮은 단계의 믿음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 읽기라는 일상의 습관이 겹겹이 쌓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생활 속에서 만들 수 있다면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OBC 비전통독 과정이 바로 그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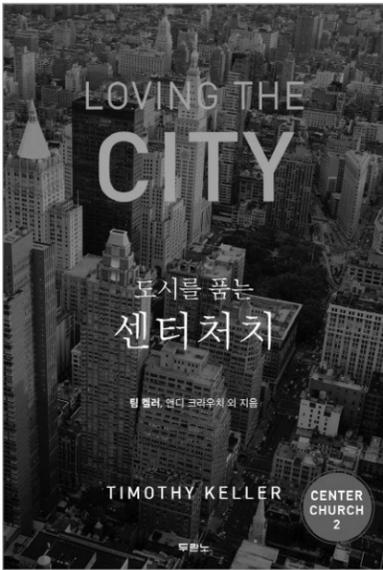
봄은 가슴을 뛰게 한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앞두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OBC 비전통독이 또 어떤 의미와 계기를 만들어 줄지 벌써 설렌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봄의 향기를 가득 담아 기도한다.

/ 장학만 성도(서빙고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 도시로의 부르심!



<도시를 품는 센터처치>  
팀 켈러 저 | 두란노 | 20,700원

수원 온누리교회 SEED공동체 대학생 지체들이 개강을 맞이했다. 우리 공동체에는 수능을 다시 준비하거나 대학을 졸업해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해서 사회로 첫걸음을 내디딘 지체들도 있다. 어느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지체들 몇 명이 나누는 대화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 대화는 도시가 고등학생 시절과 달리 성인이 된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삶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영향을 주며, 삶 자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시가 삶에 주는 의미와 삶의 연계성을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고찰하고,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 떠오른 책이 한 권 있다. 오늘 소개할 팀 켈러의 <센터처치(Center Church)>이다.

성인으로서 대학청년 시절을 시작하면 누구나 받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 '도시로의 부르심'이다. 저자는 도시가 무엇인지부터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이르'로 설명을 시작해서, 한 챕터에 걸쳐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도시를 설명하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는 오밀조밀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형태이다. 이 정의를 통해 간략하게 보면, 성인으로서 대학청년 지체들은 대학과 직장뿐만 아니라 속하게 되는 모든 새로운 그룹과 사회를 통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도시로의 부르

심'이다.

그리고 저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각자 도시를 복음으로 품으라고 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는 세상의 모든 도시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지식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등 각 특성의 중심지 도시가 선교의 주 무대였다. 그래서 대학청년 지체들에게 대학과 회사가 있는 지역은 복음으로 품을 도시이자 선교의 주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명령을 종종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문화 명령은 도시의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두 번째 '도시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저자는 "성경에서 인류의 원래 소명인 정원 가꾸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문화 개발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정원은 땅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렇다고 파괴하지도 않는다. 대신 땅을 재배열해서 삶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도시의 중심에서 행해야 할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도시로의 부르

심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는 복음이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드러야 할 것이 도시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자,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곳이 우리가 이뤄야 할 꿈을 위해 잠시 지나가는 단계이거나 단순히 지루하고 힘든 일상에 재미를 붙여 넣어주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면서 복음으로 품어야 할 곳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향한 도시로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한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도시의 중심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윤준석 목사  
(수원 온누리교회 SEED공동체)

##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 "하나님 함께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 조지 포먼 목사의 헤비급 챔피언 도전기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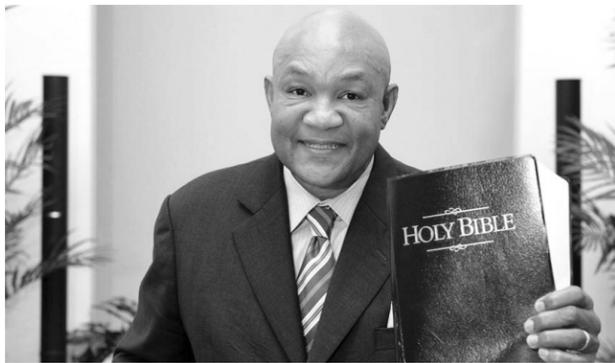
근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조지 포먼의 일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빈민가에서 자란 조지 포먼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극빈층이었다. 전국적인 직업개발 훈련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복싱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한 조지 포먼은 프로로 전향해서 1973년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 승승장구하던 조지 포먼은 1974년 무하마드 알리에게 꺾이게 된다. 그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12년이 지났다. 1986년

조지 포먼이 다시 링으로 돌아왔다. 한 마리 짐승 같았던 그가 치즈버거를 좋아하고 불룩 튀어나온 뺨살을 가진 훈한 아저씨가 돼 있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조지 포먼이 유명세를 위해서 삼류 복서들만 찾아 승리한다고 비난했다.

사실 조지 포먼이 다시 링에 복귀한 이유는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조지 포먼은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목회자가 된 그는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청소년센터를 세워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청소년들을 돌보느라 모은 돈을 다 써버린 조지 포먼은 몇 차례 모금 행사를 했지만 이내 회의에 빠졌다.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조지 포먼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무대 뒤에서 이렇게 적은 돈이 도움이 될까?라며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부터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0년 41세 조지 포먼이 헤비급 강자 제리쿠니를 물리쳤다.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듬해 27세 헤비급 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에게 도전했다. 조지 포먼은 12라운드까지 분투했지만 끝내 판정패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조지 포먼은 1994년 45세에 홀리필드를 이기고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했다. 그리고 다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조지 포먼의 도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지 포먼이 세운 청소년센터는 지금도 텍사스주 휴스턴시 청소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 영원한 나라

보이는 것은 모두 안 보이는 데서 왔기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지

먼발치서 바라보고도 약속을 기뻐했기에 모두를 들어 바쳤기에 영원한 나라를 받았지

안 보이는 것의 증거\*를 보아서리 바라는 것의 실체\*를 잡아서리

\*히브리서 11:1~3



12 온누리신문

세례 간증



/ 오정원 성도(한강공동체)

“주님만 의지합니다”

큰아들과 작은딸로 만족했다. 큰아이는 특 하면 입원하는 많이 아픈 아이인 데다 바다 을 구르는 다루기 힘든 아이였다. 나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엄마였다. 자라고 배 우면서 자연스레 느꼈던 자아성취감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매일 패배감과 좌절감만 느껴 졌다. 그래서 자꾸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하 는 신앙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웠다. 그렇 게 찾아온 셋째는 착하고 순하고 예뻐다. 육 아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아이가 예쁘다 는 말을 실감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 는 기쁨을 알라고 셋째를 주셨다는 것을 인 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고만 싶었던 넷째 소식에 정말 하늘 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이제 조금 씩 손에 잡히는데 또 임신이라니 게다가 아 들 셋이라니. 임신 중에 그렇게 신앙이 미울 수가 없었다. 나는 싫는데 허허 웃는 그 모 습에 정말 손이 떨릴 떨렸다. 그렇게 미워하 고 또 미워했더니 신앙과 직원이 탄 차가 큰 사고가 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정원아 용우가 그렇게 밍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앙만 미워하고

있었다. 진짜 소망으로 아이를 여럿 낳으신 가정이 부러웠다. “여럿이 되니까 큰아이가 많이 도와주고 학습도 봐주고 많이 수월해요 ”라고 고백하는 가정들이 정말 화가 나도록 부러웠다. 차 사고로 다친 직원으로 인해 죄 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에 갓난아이까지 다섯 을 머리에 이고 지고 있던 나는 결국 쓰러졌 다. 쓰러지다 다친 허리 골절로 3개월여를 누 워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회개 밖에 안 나왔다. 누워있는 동안 아이 넷은 신 량과 부모님, 선생님, 공동체와 동네 엄마들 의 손에서 즐겁게 지냈다. 그제서야 하나님 께서 때때마다 많은 손길을 보내셔서 돌보고 계셨구나 더욱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소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분 명히 알고 있다. 이 아이들을 맡기신 분은 하 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이 아이들을 상급 으로 주셨다는 것이다. 넷째 준하의 세례식 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지 으신 아이의 모습대로 그 삶을 책임지실 것 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조은진 자매(CH PLUS청년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

와이미션을 수강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과목의 선택지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공동체 별로 진행되는 과목이 가스펠 프로젝트와 와 이미션이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면서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기에 두 과 목 모두 수료해보자는 생각으로 와이미션을 신청했다.

나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30대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름휴가를 내고 아웃리치에 동 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마저도 어려워졌고, 선교는 나를 향한 부르심 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와이미션 첫 강의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우 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부르 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원을 당연하게 생 각하고, 이 구원이 왜, 어디서, 어떻게 계획되 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나에게 구원받 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참 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와이미션을 수강하면서 나 역시 선교의 수

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여느 학교보다 멋진 교 정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 었던 것도 선교사님 덕분이었다. 인생에서 가 장 큰 수술을 받게 된 병원도 선교사님이 오 셔서 세운 곳이었다.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 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 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위 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구원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탄 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이다. 지난 크리스마 스에 공동체에서 미안바 난민 가정을 섬기기 위해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나를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 음을 와이미션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닫힌 것만 같은 선 교 현장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

가스펠 프로젝트 참가자 소감



/ 이예스터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나는 귀한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유는 순장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큰 기대는 없었다. 코로나 19 시대에 교회에 가는 게 어려워져 다 같이 성경공부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하지만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웹브 란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다. 그때부터 강의 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도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 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완 전히 바꿔 놓은 말씀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 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우리 몸은 어느 영도 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담기지 않으면 나쁜 영이 담길 수 있다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 다. 내가 성령님께 많이 혼나던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려는 거

야?”  
내 속에 있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 깜짝 놀랐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던 분이 마귀를 쫓아주셨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가족들이 아팠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하염없이 울고 회개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으면 우리가 보물이 되는 모습이 구 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내게 다가왔다. 그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 을 얻었던 사람의 말씀도 생각났다. 나는 지 령이같이 작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하찮은 존 재지만,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물을 품고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목사님의 강의는 성경 말씀이 내게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 님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이었다. 좋은 기 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민아 성도(강남D공동체)

오늘도 한 발 더 내딛는다

창조과학은 나와 거리가 멀고, 알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영역이었다. 그런 데 창조신앙아카데미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수업을 마친 지금 나에게 창조과학은 내 삶의 기본이 되고, 친근하고, 더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 영역이 되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렇 게 변화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교육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창조과학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 간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계획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삶에 적용하 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매일 숨 쉬고 먹고 일하는 모든 시간에 나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묵상하며 그 뜻을 좇아 살아가자 한다. 맑은 하늘과 햇살과 아름 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 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 려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소중하게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고,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게 되었다. 세상을 바라

보며 느끼는 행복감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사명 으로 바뀌었다.

나처럼 성경적 이해나 목상이 부족했던 사 람도 오늘에 이른 것을 보면 창조과학을 연구 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데 힘쓰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 닫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부족한 나를 이만큼 이끌어주시는 조장님과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주 뵈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 어볼까 한다. 용기내어 더 노력한다면 질의응 답을 제외한 기본과정 핵심요약 강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회가 된다면 크리 스티언 자녀들과 초신자들을 위한 올바른 창조 과학을 전하는 일에 힘써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워주신 계획을 묵상하며, 오늘도 한 발 더 내딛는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헌혈도 전도다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온누리 전도학교 담당장로)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떠오르거나 실제 자신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전도대상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0일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90일의 기적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일독과 새벽기도회, 헌혈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헌혈 캠페인 '생명나눔의 기적'으로 남몰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헌혈은 전도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는 많은 성인(聖人)들이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인 피를 주셨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가 모자라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우리의 피를 줄 때 대상자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에 헌혈은 고귀한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헌혈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다. "하나님 이 피가 대상자에게 수혈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꼭 전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보자. 사랑의 헌혈이 지속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헌혈이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내 몸에서 400cc의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약 500-600cc의 여분의 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400cc의 피는 없어져도 된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여분의 피를 준비하기 위해 골수가 새 피를 만들기 때문에 골수가 더 건 강해질 수 있다. 헌혈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임을 잊지 말자.

이제 봄이다. 3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전도훈련도 시작된다. 우리 교회에는 두 개의 전도훈련학교가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 훈련이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 잘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강의와 조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에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조모임도 한다.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많은 간증들이 나왔다. 시간제약으로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헌혈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3월부터 시작하는 전도 훈련도 받아 보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최고의 기적으로 살아가기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자연 세계를 열어주셨다. 최고의 기적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첫날,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로 인해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고 물으셨다.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현재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돌로 막은 무덤을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나는 마르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사위의 직장 일로 슬로바키아에 간 딸 가족이 염려되었다. 그 나라는 인구가 한국의 1/10이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3천 명 이상 생긴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려도 의료시설이 열악해 입원할 수도 없고 집에서 격리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규제도 잘 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거리를 다녀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다행이 지은 시편 16편에 눈길이 갔다. 특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다.

'나'라는 단어에 딸과 사위, 손주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얼마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죽음의 세력이 그들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믿음이 생겼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새벽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놀라지 말라며 사위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집에서 격리하고 있고 열이 난다고 했다. 같이 먹고 뒹군 식구들도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어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기도를 부탁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그들에게서 받으실 주님을 생각했더니 코로나19에 걸릴 두려움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마음이 설레어 나 자신도 놀랐다. 딸을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안심해. 최고의 기적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겁먹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긴급기도를 올렸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가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닌 심장에 달리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 곳에 기도를 부탁했다. 놀랍게도 1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딸과 손주들은 감염되지 않았고 사위도 열이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더니 음성으로 판정되고 항체까지 생겨서 바로 출근했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그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 부활의 생명을 현실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컸다. 모든 가족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머리가 아닌 실제로 믿는 계기가 되었다. 담임목사님과 공동체 식구들이 자기 일처럼 기도해준 덕분에 최고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코로나19를 삼켜버렸음을 선포한다. 생명의 전달자인 교회의 기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지성현 목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지난해 2월이었다. 나는 뜨거운 선교의 사명을 품고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에서도 국가적인 긴급 사태가 선언되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처음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길어야 한 달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디지털보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회이다. 일본 사회에서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은 일본 선교에 심각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면서도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루빨리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외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 없는 일과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셨다. 온라인 사역이 지속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교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사실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2021년 목회사관학교에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감동이 들었다. 강의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도 모두 각자의 나라,

각자의 자리에서 강의하셨다. 또한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강의해주신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단순한 위기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부흥을 위한 준비의 시기임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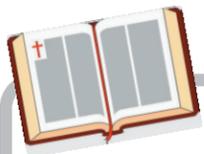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목회자들과의 온라인 나눔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영상으로 설교를 공유하면 사이버 공간에 걸리기 때문에 음성녹음 파일만 공유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사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는 목사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일본에서도 온라인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초반에만 해도 모두가 당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온라인 모임에서 자발적인 온라인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는 온라인 목회사관

학교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온라인이기에 가능한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녹화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마주보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 교회 스태프들만 참석했는데 지금은 온라인(Zoom) 파일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 함께 중보기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곳곳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

하나님 일꾼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성령 안에서 인내하라’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은혜에 빛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엄청난 압력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반전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 하나님 일꾼의 승리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8-10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일꾼의 승리를 역설적인 수사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때로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무명한 사람 같았지만 유명했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은 유명하지만 당시 바울은 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유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근심은 동족 유대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돌보던 많은 교회도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가장 큰 근심을 준 교회는 고린도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근심도 바울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령 안에서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 역설적인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체험할 수 있는지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경험한 바울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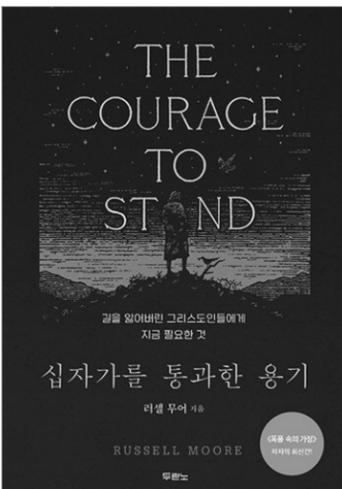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그 은혜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깨어질지라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두란노 신간

###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러셀 무어 저 | 두란노 | 16,000원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 저명한 목회자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미국의 신학자 러셀 무어가 경험하고 목상한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도 기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에게 질려서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 그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위기의 끝을 봤다.

“내 믿음은 전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두려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 필시 당신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엘리야가 필요하다.”

저자는 위기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나 강철같은 심장이 아니라고 충고한다. 저자는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을 알지 못해도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일어

설 용기, 무너질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엘리야는 갔고 당신도 가야 한다. 용기는 엘리야, 그리고 그의 길을 따랐던 모든 이들처럼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거친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심지어 죽음을 달라고 애원할 만큼 괴롭고 답답할 때 만나게 된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일어설 용기를 찾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인생 잠언-지혜편〉  
황명환 저 | 두란노 | 17,000원

이 책은 황명환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의 〈인생 잠언〉 지혜, 성공, 행복 시리즈 중에서 지혜편이다. 잠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잠언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잠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잠언을 지혜로운 삶을 위한 격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잠언이 우리의 인생 사용설명서인 이유는 잠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

“말씀에 충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따를 마음이 없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고 있고, 거만해지고 있고, 미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 폰당



폰당이 추천하는 '사순절 클래스'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세요.  
사랑하는 '순'과 함께 나누시면 더욱 좋습니다.

### 📺 '폰당' 사순절 클래스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목상	 이재훈 목사의 로마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일침(송태근 목사)
--------------------	-----------------	----------------	------------------

### 📱 '폰당' 사순절 클래스 수강 방법

- 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폰당' 앱 다운로드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3 '폰당' 앱 하단에서 '클래스' 클릭
- 4 '폰당 사순절 클래스 17'에서 영상 시청

fondant 문의 02-792-0691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후원문의 02-796-2243